

# 전윤철·윤덕홍 참여...간판급 인물 없었다

### 위원 32명 공개...“총선 모든 지역 후보...3당구도 정립”

### 축사한 김두관 합류 질문엔 “NO”...민심 향방 주목

#### 천정배 신당 창추위 발족

천정배 의원이 18일 창당추진위원회를 발족,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또 추진위원을 발표하며 신당 모습의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일단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다. 짝짝 놀랄 만한 참신성 있는 ‘간판급 인사’는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러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낮은 지지율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국에 따라 ‘천정배 신당’이 폭발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신당 참여자는=이날 공개된 천 의원을 포함한 32명의 창당추진위원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와 여성·농업·IT·경제·법률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와 같은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인사와 고문으로 추진위에 참여했다. 외교전문의로 현재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전홍준씨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추진위원으로는 여성운동을 해온 양미강 한백교회 담임목사, ‘박사 농부’ 이동현씨,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비서관, 1세대 IT 전문가이주현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조세재정 및 경제정책 전문가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광주병 파동 당시 유명세를 탔던 우희중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무한도전 변호사’로 유명한 장진영 변호사는 추진위 대변인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추진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을 통해 사회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올린 분들”이라

며 “그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신 분들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축사를 해 신당 입당 관측을 낳았으나 김 전 지사는 일단은 신당에 합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비쳤다.

◇전망=천 의원은 “기존 양당과 함께 3당 정립 구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그것을 넘어서서 야권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발 댄 천정배 신당 창당

대해볼 수 있다. 역동적인 민심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천정배 신당’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다만,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향후에 민심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새정치연합 내에서 천 의원까지 포함한 통합전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천 의원은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는 당에 미래가 없다”고 일축했다.

‘천정배 신당’이 박종연 전 전남도지사의 신민당, 박주선 의원의 신당,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 등과 어떤 관계설정

을 할지도 관심사다. 일단, 천 의원은 독자신당을 추진하면서 향후 상황을 보며 통합 또는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선 대응과 관련, 천 의원은 “전국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당 창당이 야권 분열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은 혁명적 파도가 필요할 시기”라며 “다만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방식은 충분히 경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호남에서는 새정치연합과 경쟁을 하고 수도권은 경우 상황을 보며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기자 노트

### 비엔날레 이사장 정치참여 ‘유감’



최권일 정치부 부장

18일은 광주·전남 지역정부가 술렁이는 날이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서울에서 본격적인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창당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기 때문이다.

내년 제20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기여서 천 의원의 호남발 신당 창당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개혁적 국민정당을 내걸고, 내년 총선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돼서다.

그런데, 이날 광주에선 정치권이 아닌 문화계가 낯뜨겁게 술렁였다.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이 천 의원이 창당하는 야권 신당 추진위원으로 딱하니 이름을 올려놓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뿐만 아니라 재단 내부, 광주 문화계가 전 이사장의 정치 참여에 우려를 표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비영리 기관으로, 정관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어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하지만,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단의 독립·자율성과 개혁 차원에서 민간 이사장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처음 선임된 민간 이사장이 신당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대표적 브랜드고,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성장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다져야 할 과제는

많다. 비엔날레 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 이사장의 정치 참여는 정치적인 갈등과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다분하다.

특히 윤 시장의 당적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점이 다. 오는 25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식 개관한다. 전당 개관과 더불어 비엔날레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13일 취임 일성으로 “성년이 된 광주비엔날레가 국제 현대미술의 사조를 수용해 내실을 다져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밑에서, 뒤에서 간접적으로 도와 주겠다”면서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서 튼튼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전 이사장을 모셨을때는 분명히 존경받는 지역 원로로서, 광주비엔날레의 개혁과 발전을 해줄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 문화계에선 정치 참여에 나선 전 이사장에 대해 굽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엔날레 발전과 크게는 광주 문화발전을 위해 전 이사장 정치 참여가 아닌 지난 1월 취임 당시 ‘조심’을 되새기길 바란다.

/\*cki@kwangju.co.kr

### 예산소위 ‘사·보임’ 중단 결정

#### ‘꼼수’ 비판에 파행...여야 간사, 정부 배석 하에 합의

의원들의 교제 투입으로 비판을 받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사·보임 운영을 19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회동에서 앞으로 소위 위원들의 사·보임을 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양당 간사의 합의에는 송은석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춘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배석했다.

앞서 소위는 여야 15명(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 정원으로 의결됐으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각각 1명씩 추가해 17명으로 늘리기로 하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정면 반발하면서 ‘꼼수 증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막판에 추가된 이정현 의원을 소위 운영 도중 사·보임으로 교체 투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이에 새정치연합은 매일 한 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해 사실상 8명이 모두 참여하는 ‘순번제’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꼼수 운영’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순번제를 두고 “헌정 사상 초유의 사·보임 행위가 벌어진다”며 “야당의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사·보임 행위는 야당 몫인 7명을 8명으로 늘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 새정치연합은 “(소위 정원으로) 15명으로 의결한 거지, (의원) 성원으로 정한 건 아니다”고 맞서면서 이날 소위는 한때 파행을 겪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치 ‘현역 하위 20% 물갈이’ 작업 착수

#### 시행세척 통과...‘내년 총선의식 73석’ 문건 유포 경위 조사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이하 평가위)의 시행세척이 조건부로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날 최고위는 평가위가 추후 배정 기준을 마련, 최고위의 의결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시행세척을 통과시켰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평가위에서 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시행세척 우선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며 “시행세척 통과 이

후 배정기준을 최고위에서 의결 받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의 시행세척안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전원을 상대로 각각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 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정 활

동 70% ▲다면평가 30%로 평가한다.

평가위가 실무 작업에 착수할 근거를 마련하면서 당내 현역 의원들은 평가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에서는 평가위가 이달 말부터 당무 감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반 무렵 국회 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 내외에서는 호남에서 최소 2~3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평가위에서 걸러질 것이라는 루머가 제기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평가위의 활동이 본

격화되면서 낮은 점수가 우려되는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내 비주류 성향의 모 의원은 “배정 기준도 없이 깜깜이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찝찝한 기분”이라며 “평가위의 평가와 관련, 각종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 괜히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확보 가능한 의석이 73석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작성, 언론에 유포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유포자가 파악되면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법률위원회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